

# “우리들 이야기 ... 해피엔딩이길”

## 드라마 '하나뿐인 내편' 최수중

시청률 40% 돌파를 목전에 두고 강력한 뒷심을 발휘 중인 KBS 2TV 주말극 '하나뿐인 내편'은 정통 홈드라마다.

'황금빛 내 인생' 속 '상상암'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전개는 보이지도, '같이 살래요' 속 황혼 로맨스처럼 트렌디한 소재를 다루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시청자들이 호응을 보내주는 데 대해 극을 맨 앞에서 끄는 배우 최수중(56·사진)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여의도 KBS별관에서 만난 최수중은 “약역으로 쓴소리를 듣는 장다야(윤진이 분)도, 소양자(임예진)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라고 설명했다.

“다야도 시청자에게 욕을 많이 먹지만 알고 보면 어릴 때 아버지 없이 자라 결핍이 있어 늘 자기에게 사랑과 관심이 집중되길 바라는 거죠. 양자도 그럴 수 있어요. 아팠던 딸 둘을 맡아 힘들게 키웠는데 ‘내게도 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볼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하나뿐인 내편’의 모든 캐릭터가 실제로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시청자들이 공감해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드라마 속 수일과 딸 도란(유이)은 극 중 누구보다 박복하고 기구한 운명을 지녔다. 더군다나 두 사람 관계가 완전히 타로 날 일만 남아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요즘이다. 오뎅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연기하다 보니 아빠도 딸도 날로 말라간다. 인터뷰에서 만난 최수중도 얼굴이 한층 핏색했다.

최수중은 “이제 부녀가 어떻게 고난을 헤쳐나가는지가 관전 포인트”라며 “3월 중순 종영이니 아직 갈 길이 먼데 결국에는 모두가 해피엔딩이길 바라고,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딸로 호응 중인 유이, 러브라인으로 만난 진경에 대해서도 남다른 애정을 표했다.

“유이는 지금 정말 제 딸이라고 생각하고 연기해요. 실제 제 딸을 떠올리며 연기한다거나 하는 것은 연기자 개론으로 따지면 ‘하수’거든요. 진짜 제 딸인 만큼 눈빛만 마주쳐도 눈물이 흘러요. 대본에 없는데도요. 하지만 PD님도 얘기해요. ‘그게 맞다’고. 수일과 도란이 왜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만나냐고 답답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생각해보세요. 도란이가 얼마나 ‘아빠’라고 부르고 싶고, 다른 아빠와 딸처럼 팔짱을 끼고 보고 싶겠습

시청률 40% 눈 앞 ‘국민 드라마’ 딸 유이, 눈만 마주쳐도 눈물 흘러 국민에 자부심 심어주는 KBS 대하사극 부활했으면

니까.”

그는 “지난 연말 KBS 연기대상에서 베스트커플상도 받은 진경 씨는 호응하는 게 정말 재밌고 좋다”고 덧붙혔다.

최수중은 ‘하나뿐인 내편’으로 최근 KBS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청률의 제왕’에, KBS 연기대상으로만 3관왕을 달성한 그이지만 여전히 두근두근한다.

최수중은 1987년 데뷔해 발랄한 청춘스타로, 1990년대에는 무게감 있는 연기로, 2000년대에는 사극으로 사랑받으며 끊임없이 변신했다. 그중에서도 최수중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역시 사극이다. 세종, 고종, ‘수중’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니 말이다.

하지만 최근 KBS 대하사극은 명맥이 끊어진 상태다. 최수중도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KBS는 방대한 역사 아카이브를 가졌죠. 의상만 해도 고대부터 현대까지 몇천벌이 그대로 보존돼있어요. 대하사극은 KBS가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공영방송 책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또 대하사극을 통해 시청자들이 갖은 역경 속에서도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잖아요. 조선왕조 500년뿐만 아니라 그 전의 역사까지 다루는 작품이 KBS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그걸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신을 훌쩍 넘어 예술에 가까워진 나이지만, 최수중은 연기에 대한 열정도 아내 하희라에 대한 사랑도 늘 한결 같다. 한 쌍의 앙포 같은 두 사람의 모습은 지난해 SBS TV ‘동상이몽2’를 통해서도 확인한다. 최수중은 “첫 마음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지금도 손잡으면 설렌다고 하는 말은 진심이예요. 결혼할 때 첫 마음을 유지하면 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한 번도 안 싸웠다고 해도 신경전이야 왜 없었겠어요. (웃음) 결혼은 개인 대 개인이 아닌, 집안 대 집안이니깐. 하지만 하희라 씨는 제 어머니를 저보다 더 챙기고, 저는 장인어른을 하희라 씨보다 더 챙겨요. 하희



라 씨는 이쪽 딸, 저는 저쪽 아들. (웃음) 그러다 보면 갈등이 저절로 해결돼요. 앞으로도 함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다면 보여드리고 싶어요.”

/연합뉴스

## 블랙핑크 ‘뚜두뚜두’ 뮤비 유튜브 6억뷰 돌파

### K팝 그룹 최단기록

걸그룹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뮤직비디오가 K팝 그룹 중 최단 시간에 유튜브 6억 뷰를 돌파했다. <사진>

13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해 6월15일 공개된 이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전 211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6억 건을 넘겼다.

이 뮤직비디오는 2억뷰를 돌파한 시점부터 1억뷰를 추가할 때마다 남녀 그룹을 통틀어 최단 시간 기록을 썼다.

아울러 블랙핑크는 3억뷰 돌파 뮤직비디오가 5편으로 K팝 걸그룹 중 가장 많이 보유한 팀이다. ‘뚜두뚜두’뿐 아니라 ‘마지막처럼’과 ‘붐바야’가 4억뷰, ‘불장난’과 ‘휘파람’이 각각 3억뷰를 넘겼다. 또 멤버 제니의 솔로곡 ‘솔로’(SOLO)가 국내 여자 솔로 가수로는 최단 시간 1억뷰를 돌파했으며, ‘뚜두뚜두’와 ‘마지막처럼’, ‘붐바야’ 안무 영상도 모두 1억뷰를 넘겼다.



#BLACKPINK #블랙핑크 #THE1STMINIALBUM BLACKPINK - '뚜두뚜두' (DOU-DU DOU-DU) M/V 조회수 600,003,662회

블랙핑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수는 1700만명에 달한다.

이 같은 글로벌 영향력으로 이들은 지난해 10월 미국 최대 음반사 유니버설뮤직 레이블 인터스코프와 손잡고 현지 진출을 예고했다. 최근 K팝 그룹 최초로 4월 열릴 미국 음악 페스티벌인 ‘코첼라’ 무대에 오른다고 알렸다.

이들은 11~13일 태국 방콕을 시작으로 아시아, 북미, 유럽, 호주 등지에서 열릴 첫 월드투어에 나섰다. /연합뉴스

## 워킹맘 된 ‘막돼먹은 영애씨17’ 내달 8일 첫방송

### 파란만장 육아할투극

국내 최장수 시즌제 드라마 tvN ‘막돼먹은 영애씨’ 열일곱 번째 이야기가 다음 달 8일 시작한다. <사진>

tvN은 ‘막돼먹은 영애씨17’을 다음 달 8일 오후 11시 ‘톱스타 유백이’ 후속으로 방송한다고 11일 밝히며 포스터를 공개했다.

2007년 처음 선보인 이 드라마는 tvN 개국공신으로 불린다. ‘노처녀’ 이영애(김현숙 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직장인들의 애환을 현실적으로 담아내 시청자들 호응을 얻었다. 이번 시즌에서는 지난 시즌에서 결혼한 영애가 ‘막영애’에서 ‘맘(Mom)’영애가 돼 돌아온다.

연출을 맡은 한상재 PD는 “전 시즌을 끝으로 초기 기획에서 의도한 노처녀의 일과



사랑이라는 주제는 막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시즌은 엄마가 된 영애 씨의 파란만장한 육아할투극과 오피스 스토리가 중심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즌에는 영애의 남편 승준 역의 이승준, 오랜 시간 시리즈를 이끈 라미란, 지난 시즌 합류한 이규환, 새 멤버 정보석, 박수아, 연재영이 함께한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트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양코로 MBC 스페셜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다큐 공감(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2 :죄와 벌(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MBC네트워크특선 <신주방문 1부>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KBC특집 파워인터뷰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을 행복아카데미	1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2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50 공감다큐, 사람(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10 전라도 매력청(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뿌까 55 뽀뽀모 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꾸러기 식사교실(재) 55 5 MBC 뉴스	00 방학특선 다큐멘터리 정벽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다큐멘터리 3일(재)	15 MBC플러스특선 대한외국인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루기	05 원소집이 아내	10 용왕님 보우하사 55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고행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꿈자락
8	30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차중우돌 만국 유랑기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55 나의 독립 영웅 <황병길>			
10	00 가요무대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2:죄와 벌	00 나쁜형사	00 복수가 돌아왔다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10 안녕하세요	10 MBC 스페셜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40 KBS 뉴스 50 이웃집 찰스(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20 스포츠평론 MLB 핫토크	30 나이트 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띠띠뽀 띠띠뽀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9:00 몬카트
06:20 세계테마기행	13:00 다큐 오늘	19:30 EBS 뉴스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3:10 고양이를 부탁해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7:30 띠띠뽀 띠띠뽀	13:40 배워서 남줄렘(재)	20:40 세계테마기행 <기차타고 구석구석, 우리가 물렀던 일본 1부 규슈 시골여행>
08:00 당동맹 유치원1~2	14:30 몬카트(재)	21:30 한국기행 <아공이행2 1부 그리워라 군불의 추억>
08:30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23:55 배워서 남줄렘 24:50 세계의 드라마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5 파프리카	
09:00 뽀로로와 노래해요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09:30 우리는 비트로스터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15 똑딱맨	
10:30 한국기행(재)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45 당동맹 유치원1~2(재)	
	17:15 마사와 곰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36년생 급히 손질해야 할 부분이 보이니 지체 없이 조치 하라. 48년생 신변을 정리하고 진퇴를 분명히 하자. 60년생 표준이 될 만한 전례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72년생 순리대로 풀어나간다면 결과가 좋다. 84년생 설상가상에 사면초가의 형국이다. 행운의 숫자 : 81, 51</p>	<p>42년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함이 유용하다. 54년생 구색을 맞추다보면 효율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66년생 노출된 외관까지 신경 쓰자. 78년생 수용하는 것이 백 번 낫다. 90년생 여러 가지를 견문하면서 다양한 기회를 갖되 선택은 신중히 하라. 행운의 숫자 : 29, 74</p>
<p>37년생 애로 사항이 많아질 수 있다. 49년생 속마음을 이해해 줄만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것이다. 61년생 일관된 자기 확신이 절실하다. 73년생 고수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85년생 포용하고 나아가는 것이 무리가 없다. 행운의 숫자 : 63, 46</p>	<p>43년생 지나친 집착은 대국을 망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55년생 반드시 실용성을 전제해야 하느니라. 67년생 손쉽다. 79년생 복잡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91년생 전혀 예상하지 못 하였던 다른 국세로 탐바꿈할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58, 32</p>
<p>38년생 즐겁고 경사스런 일로 기쁨이 넘치리라. 50년생 한 마음이 되어야만 이루어지느니라. 62년생 제대로 역량을 발휘해야 할 국면에 이르렀다. 74년생 숨은 속 뜻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느니라. 86년생 다방면을 고려할 수 있는 현명함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44, 61</p>	<p>44년생 인과 관계를 냉철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56년생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 68년생 확실치 않음을 짓고 넘어가야 한다. 80년생 특별한 일을 당하거나 목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92년생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고비를 넘길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5, 57</p>
<p>39년생 마음먹어 왔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다. 51년생 상대방의 의도적인 술수가 보인다. 63년생 당치도 않으니 꿈도 꾸지 말라. 75년생 생각함으로써 생기고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지느니라. 87년생 효과가 미치지 않는 범위에 놓여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83, 50</p>	<p>45년생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충분히 가져야겠다. 57년생 보류되어 왔던 것을 재개하는 마당이니라. 69년생 시기를 놓친다면 소용이 없느니라. 81년생 부수적인 것까지 살펴보는 것이 낫다. 93년생 발 빠른 실태 분석과 조치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91, 25</p>
<p>40년생 오늘은 재물을 얻는 길함이 있도다. 52년생 투철한 소명 의식과 사명감이 절실히 요청 된다. 64년생 참으로 중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76년생 적재적소에 쓰여야 효과를 보는 법이다. 88년생 적용하기에는 미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3, 83</p>	<p>34년생 우연한 기회가 행운으로 연결 되리라. 46년생 강풍이 몰아치니 비바람부터 피하고 보아야 한다. 58년생 고정 관념을 깨야 새로운 것이 보인다. 70년생 과정에 충실하라. 82년생 그 어느 것보다도 중한 것이니 소홀히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라. 행운의 숫자 : 74, 94</p>
<p>41년생 미리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는다. 53년생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65년생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만 한다. 77년생 지난 날 언행 했던 바의 결과가 나타나 수 있는 날이니라. 89년생 자료보다는 체험에 의존함이 훨씬 나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1, 28</p>	<p>35년생 합목적성과 투명함이 성과를 배가 시키게 된다. 47년생 손발이 적절 맞아서 손조로움을 더 하겠다. 59년생 그 무엇보다도 실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71년생 확신이 서지 않으면 미비점을 찾아내야 한다. 83년생 정도를 걷는 것이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13, 23</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항영” ☎010-9790-8237